

사회

# 응급 환자 못 구한 '닥터 헬기'

## 신안 장산도 출동중 고장... 다른 헬기로 이송했으나 숨져

28일 신안군 장산도에서 경운기 사고로 어깨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김모(87)씨를 후송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입된 지 1년도 채 안 된 닥터 헬기가 갑자기 기기 이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송이 지연되면서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목포 한국병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닥터 헬기가 신안군 장산도에 출동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15분경, 현장에 도착한 응급 전문의와 간호사가 응급처치 후 김씨를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으나 닥터 헬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보음이 울렸다.

김씨가 고령인데다 내부출혈 가능성도 높아 시간이 촉박했던 의료진은 닥터 헬기를 포기하고 소방헬기를 요청, 50여 분 뒤인 오전 11시10분께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김씨는 골절 부위에 내부 출혈이 계속되면서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전남지역 닥터헬기 거점 병원인 목포 한국병원 관계자는 "이송 지연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응급처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환자가 워낙 고령이었고 상처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부 출혈을 신속하게 지혈하고 수혈 등에 나섰으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1대당 임대료만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닥터 헬기가 환자를 제 때 병원에 이송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닥터 헬기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측은 경보음이 울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 헬기 자체가 응급의료진의 신속한 현장 투입에 있는 만큼 정상적인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발 전 헬기 점검 시 이상이 없어 출항했으나

현장 도착 후 경보음이 들어와 안전상 운량이 불가능했다"며 "소방헬기로 김씨를 이송한 후 정비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복잡한 닥터 헬기의 기기가 민감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안전 운항을 위해 정비사가 매일, 출발 전·후 닥터헬기를 점검한다고 해명했으나 헬기 내부 기기 이상을 일으킨 원인이 밝혀지지 못할 경우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닥터 헬기=낙도 등의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가 각종 응급의료 장비와 전문 약물을 갖추고 탑승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2011년 9월 도입했다. 주 헬기 2대와 고장·수리 시에 투입되는 대체 헬기 1대로 구성됐으며 목포, 인천에서 운용 중이다.



입영 신체검사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이 28일 실시한 2012년 첫 신체검사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나주취재기자 mjna@kwangju.co.kr

##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이 비조합원 협박

## 檢, CNC 대표·직원 등 체포 조사

### 장성서 차량 가로막아

화물연대의 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참여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화물트럭 운전자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오후 3시에 나주에서 정읍으로 향하던 25t 화물트럭 운전자 박모(45)씨는 장성 삼계면 삼부대 동문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이 여러 대의 차량으로 뒤쫓아와 확성기로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하고 협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비조합원인 박씨는 이날 정읍으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이 과정에서 무서워서 차량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경찰을 신고 하겠다"고 하자 조합원 2명이 자신의 차량에 부상당했다며 으름장을 놓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모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총파업에 동참하여 달라고 요청했을 뿐 목욕 하거나 차량을 막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선거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대표 김모씨를 비롯해 전 현직 직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출두 요구에 불응한 김 대표 등에 대해 27일 오후 늦게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이어 CNC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에도 김 대

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체포된 직원들은 당시 프랜차이즈 카피라이터로 근무했거나 전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광주시 광주시교육감 등에 허위 권력서를 제공했다는 여부와 선거 출마자들과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철부지 초등생들 '람보르기니 테러'

### 수리비 1억5천만원... 부모들 곤욕

수억대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훼손한 철부지들 때문에 부모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28일 광주에 1대 뿐인 람보르기니 차량을 파손한 광산구 한 초등학교 4학년 A(10)군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B(30)씨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라고 LP640 연두색 차량에 분발 소화기를 뿌려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B씨의 차량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과정을 CCTV(폐쇄회로)TV로 확인하고 B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CCTV에서는 A군 등이 소화기를 뿌린 뒤 차량에 올라타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소화기의 점액 성분이 차량 내부까지 스며들



어 세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수리비가 1억5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차량을 5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초등학생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14세 미만이라서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학생들의 부모와 합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차량의 피해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차를 밟고 소변까지 1인당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檢 수사관 골재채취업자에 돈 받아

### 경찰, 뇌물수수 입건... 검찰 "증거부족"

### 광주지법, 골재업자 징역 2년

경찰이 골재채취업자 등과 수사한 돈거래를 한 검찰 수사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골재채취업자와 나이트클럽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 장모(41·7급)씨 등 4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골재채취업자인 전모(50)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지난 2009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원을 받아 행간 혐의다. 또 장씨는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45)씨와 폭력계거러 전 조직원 조모(42)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씨와 전씨 등은 모두 개인적인 돈거래일뿐 청탁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골재채취업자 전씨는 저수지 퇴적토 준설공사를 빙자해 100여대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돼 이날 1심이 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전씨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개인적 친분 관계도 없어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물론 장씨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관사 이상현)는 이날 저수지 퇴적토 준설공사를 빙자해 100여대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D개발 대표 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598) 김중두



## 원생 손발 묶고 성폭행 인화학교 전 직원 징역7년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처를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보호받아야 하는 장애인에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주부 나체사진 찍어 협박 돈 뜯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주부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경찰에 달미.

○2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문모(46·광고업)씨는 지난해 여름 만나 사귀던 이모(44)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4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뜯어냈다는 것.

○경찰은 문씨가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 중.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www.ocskj.com
광주화교 중국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

# 광주에 단 한곳뿐인 6년제 중국학교

- 모집인원 60명(선착순 모집)
- 지원자격 2006년 이후 2007년 12월 이전 출생자
- 원서교부 2012년 7월 1일 ~ 7월 9일(9일간) 오전 10:00~오후 04:00
- 원서교부주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원서접수 2012년 7월 10일 ~ 7월 14일 (오전 10:00~오후 03:00)
- 원서접수주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구비서류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매, 소명합판 사진 3매(3×4cm),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전형일 2012년 7월 15일(합격자대상자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원서료 10,000원 (원서 교부시)
- 유치부등록일 2012년 7월 16일 ~ 7월 20일
- 소집일 2012년 8월 17일 오전 10시
- 개원일 2012년 8월 21일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유의사항”

- ① 생년월일 미달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대기자 등록 가능 : 정원 미달 시 생일 순으로 입학가능)
- ② 등록후이라도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 ③ 학기중에는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華僑 제외)
- ④ 입학 후 본교의 학업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비는 산정 후 반환됩니다.
- ⑤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 232-4163 - 전화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 光州華僑中國學校 Tel.232-4163